

여수 석유화학고등학교 개교

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석유화학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여수전자화학고등학교가 3월4일 오전11시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<개교식 및 입학식>을 갖고 <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>로 새 출발했다.



개교 전부터 전남지역 최고의 신입생 경쟁률을 보인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는 2012년 교과부로부터 석유화학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후 교육과정 개발, 신입생 선발, 기숙사 및 기자재 확충 등 개교 준비를 마쳤으며, 초대 교장으로선 전 테크니션스쿨 원장인 조영만 교장이 취임했다.

2013년도에는 공정운전과 3학급 60명, 공정설비과 1학급 20명, 공정계전과 1학급 20명, 도움반 10명, 정원 외 3명 등 총 113명이 입학했다.

이호경 여수시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“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가 전국 마이스터고 중에서도 으뜸가는 학교로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”며 “여수시도 인재양성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백년지대계라는 신념으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3/03/04>